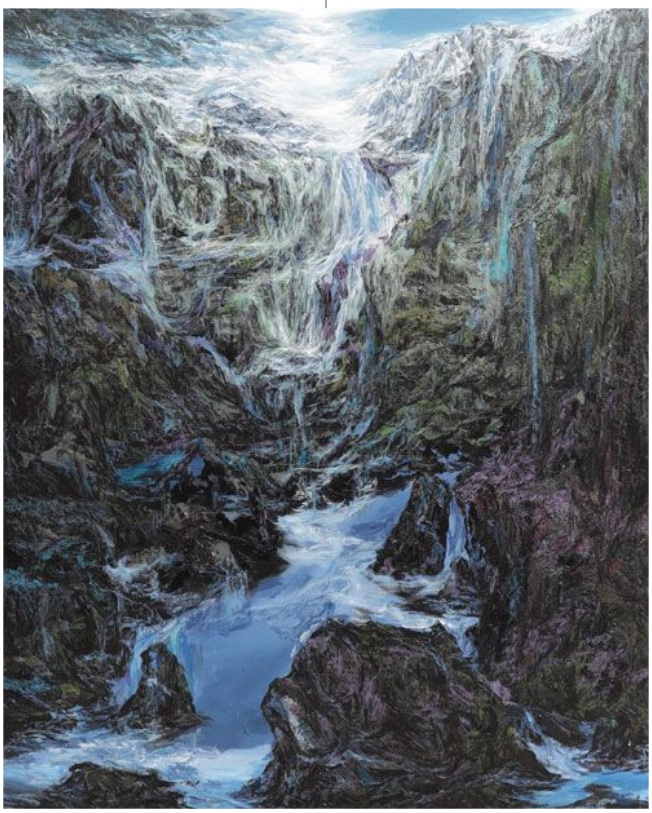
Summer Love: 송은 아트큐브 그룹전

EXHIBITION

2015 / 08 / 04

이현

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
Summer Love: 송은 아트큐브 그룹전 1부U-
7. 10~8. 8 송은아트스페이스(http://www.songeunart-space.org/main.asp)



박미경 〈An Obscure Island〉 캔버스에 아크릴릭 160×130cm 2015

송은아트스페이스 설립 5주년을 기념해 열린 특별기획전 〈-Summer Love: 송은 아트큐브 그룹전 1부〉가 열리고 있다. 1,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 전시는 지난 5년간 송은아트큐브 전시지원 공모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가 32명의 신작 및 미발표 작품들을 처음 공개했다. 작가 박미경은 〈An Obscure Island〉-를 출품했다. 하늘과 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곳에서 흘러나온 폭포수가 지면으로 낙하한다. 한여름 뙤약볕을 피해 달려가고 싶을 만큼 시원한 장관을 연출하는 화면에서는 금방이라도 경쾌한 물소리가 들려 올 것만 같다. 하지만 이내 비현실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섬뜩함마저 느껴진다. 작가는 짧은 붓질로 표면을 스치듯이 채색해 추상화에 가까운 풍경화를 그려 왔다. 실제

자연을 모사하지 않고 '풍경'이라는 개념을 천착하며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구축한다.